

공동체 소식

**연중 제 18주일**

시작이며 마침이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하느님의 나라로 부르시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느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찾게 하소서.




8월 기도지향

-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가정
- 박성기(모이세), 김정옥(수산나) 가정

주간 전례

- 8/6(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 8/8(목)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 8/10(토)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성모승천대축일

다음 주일(8/11)은 ‘성모승천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음을 기념하는 의무축일입니다.

셀 기도 주일 팀

- 첫 모임 : 8/11(일) 중심미사 후, 오후 1시
- 장소 : 회관

☞ ‘셀기도’는 성모님을 통하여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좋은 신심단체입니다.

광복절 기념 소프트볼 대회

- 일시 : 8/10(토) 오전 9시
- 장소 : Heritage Park Softball Complex

☞ 올해도 저희 본당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함께 응원합시다. 특별히 교육분과와 행사분과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타

- 저희 한인 공동체의 친교와 미래를 위해 주일 미사만큼은 본당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하고 소홀히 한다면 공동체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 본당 공동체의 기도와 방문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지체 없이 구역장님을 통하여 신부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38	513	182/174	19

주일미사 복사

금주	정병훈(보니파시오), 김준영(요셉)
차주	안지영(카타리나), 고평원(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카타리나)	류기범(요 세프) 신혜경(마리아)
차주	최은미(아 네 스)	조장군(바오로) 우숙정(아나스타시아)

애찬 봉사자

금주	백문주, 최은미, 박정옥, 안이, 박정자
차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박옥희, 전현교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드로)
차주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7/21	87명	382불	890불
07/28	90명	410불	2,050불

☞ Mrs. 골만 유족의 감사헌금이 있었습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탐욕이 안겨다 주는 허망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모든 열정은 탐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애써 왔던 모든 일이 과연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 때문인지 곰곰이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 성화해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장 바티스트 시메옹 샤르댕, 1744년, 캔버스에 유채, 에르미타주 미술관 소장, 러시아)  
렘브란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밤은 이미 깊었는데 덧없는 삶을 의미하는 촛불은 돈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가려져서 쌓여 있는 재물과 부자의 얼굴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지 못한 채 돈을 헤아리고 있는 부자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루카 12,20)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코헬 1,2; 2,21-23 <그 모든 노고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



주 님 당 신 은 대 대 - 로 저 희 의 피 난 처 가 되 시 었 나 이 다

-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께서는 말씀하시나이다. 인간의 종락아 돌아가거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토막 밤과도 비슷하나이다. ◎
- 당신께서 나아가면 그들은 한바탕꿈 아침에 돌아나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프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리나이다. ◎
- 날수 셀 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어 저희들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하소서. 주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오리까 당신의 종들을 어여뵈 여기소서. ◎
-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 저희 하느님의 어지심이 저희 위에 내리옵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

제 2 독서 : 콜로 3,1-5.9-11  
< 여러분은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 루카 12,13-21 <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

# 세 마

## “하느님의 은혜를 안다면...”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더운 여름날 베짖이는 나무 그늘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비웃지만, 겨울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베짖이는 개미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많은 소출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자는 베짖이가 아닌 개미에 비교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무라십니다. 그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큰 재산만 믿으며”(시편 52,9) 산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거둔 많은 소출이 하느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농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씨가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한 햇살과 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는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부자들은 열매와 곡식이 자라는 논과 밭을 자기네가 소유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싹 틔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십니다. 자기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거기서 일한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궁핍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부자들의 임무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나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꼬여들어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자식들이 불목하며 친족간에 분쟁이 벌어진다면, 그 재산을 모으려고 쏟은 “모든 노고와 노심”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제1독서) 자신이 거둔 결실과 성공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가진 바를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제2독서) 신앙인은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현세적인 것, 곧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버릴 때 가진 바를 흔쾌히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에 나눔으로 응답하는 신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보다는 돈에 더 희망을 거는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느님이 진정한 주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서울대교구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 마중물

## 믿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7가지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바라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은 자입니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은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 첫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 둘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 셋째, 주님과 의 일대일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 넷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 다섯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 여섯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 일곱째, 사람만 바라보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비로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 ‘신앙의 해’ 교육자료

## 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 47.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양”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속죄제를 바칠 때에 자신을 대신해서 흠 없는 어린양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물론 제물로 바쳐진 어린양은 죽어야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인들에게처럼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기로 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같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고난 받는 종이며, 동시에 첫 파스카 때 이스라엘의 속량을 상징하던 파스카 어린양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표현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08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